

베델교회 BETHEL CHURCH 담임목사: 김한요 Rev. Bryan Kim, Lead Pastor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 www.bkc.org ◆ bethel@bkc.org
Tel: 949.854.4010 ◆ Helpdesk(Text-only): 949-229-1181

교회학교 및 그 외 주일예배 안내

- **영아부(0–1.5세) / 본당 1층 영아부실**
  9:00AM, 11:00AM
- **유아부(1.5–3세) / 본당 2층 유아부실**
  9:00AM, 11:00AM
- **유치부(3세–PreK) / 할렐루야채플**
  9:00AM, 11:00AM
- **K–1(킨더가든–1학년) / 임마누엘채플**
  9:00AM, 11:00AM
- **유년부(2–3학년) / 유년부실**
  9:00AM, 11:00AM
- **초등부(4–5학년) / 체육관**
  9:00AM, 11:00AM
- **영어중등부(BYM JHS) / 찬양채플, 비전채플**
  9:00AM(찬양채플), 11:00AM(비전채플)
- **영어고등부(BYM HS) / 비전채플, 비전센터109호**
  9:00AM(비전채플), 11:00AM(비전센터109호)
- **한어중고등부(CIM) / 샬롬채플**
  11:00AM
- **소망부(장애인) / 조이채플**
  9:00AM, 11:00AM
- **BETHEL GRACE CHURCH / 베델그레이스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日本語 礼拝 / 샬롬채플**
  9:00AM

담임목사 방송설교 안내

- **공중파 TV 방송:**
  미주 CGN TV 채널 44.9 · 화요일/오후 3시
- **케이블TV 방송 (CTS America):**
  TV DirecTV 채널 2092 · 공중파 채널 18.8
  화요일/오후 6시 45분 · 목요일/오후 12시 30분
- **라디오 방송 (GBC 미주복음방송):**
  주파수 AM 1190 KHZ · 금요일/오후 1시

주 일 예 배 Lord's Day Worship Service

1부 예배 | 7:00AM 2부 예배 | 9:00AM 3부 예배 | 11:00AM 4부(청년) 예배 | 2:00PM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 Presider 예배 인도자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 사도신경 ..... All together 다같이

*찬양과 경배 Praise & Worship ..... Bethel Worship 베델워십

1부/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찬163/새176장)

기도 Prayer ..... All together 다같이

1부/장지봉 집사 2부/주진철 장로 3부/홍승평 장로 4부/정예린

찬양(1부) Anthem ..... Bethel Choir 베델콰이어

1부/곧 오소서 임마누엘(이형구 작곡)

영상광고 Media Announcement ..... Media 방송실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 1, 2, 3부/요한복음(John) 7:53-8:11 ..... All together 다같이

4부/요한복음(John) 11:28-44

말씀 Message ..... 1, 2, 3부 ..... 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궁예(13) 돌을 던질 수 있는 한 사람

4부 ..... Rev. Solomon Kang 강솔로몬 목사

Solus Christus(39) 일곱 번째 표적: 눈물을 흘리시더라

적용찬양 Song of Response ..... All together 다같이

1, 2, 3부/예수 피를 힘입어

성찬식 Communion ..... All together 다같이

*결단찬양 및 봉헌 Song of Dedication and Closing ..... All together 다같이

1, 2, 3부/내 주의 보혈은(찬186/새254장)

*축도 Benediction ..... 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표는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가 동시통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www.bkc.org)

담임목사 칼럼
Lead Pastor's Column



김한요 목사 / Rev. Bryan Kim

'백투베델'의 소감

Reflections on 'Back to Bethel'

'백투베델' 행사는 우리 교회에 참으로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미주 이민 교회라면 어디든 씨름하며 아파하지만, 선뜻 시도하지 못한 채 묻어두었던 세대 단절의 문제에 우리 베델교회가 첫 발을 내디뎠기 때문입니다. 미주 한인 교회의 역사가 반세기를 넘으면서 2세들이 어느덧 장년이 되었습니다. 지금의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세대가 공존합니다. 성인이 된 자녀가 부모의 교회를 떠난 세대와, 아직 어린 자녀의 손을 잡고 교회에 나오는 젊은 3040 세대입니다.

저는 35년 전, 매사추세츠주 앰허스트의 대학가에서 첫 담임목회를 시작했습니다. 대학원생 중심의 한어예배와 함께 20명의 대학생으로 영어권 예배(Koinonia)를 개척해 150여 명이 모이는 교회로 일구었습니다. 당시 학생의 절반 이상이 캘리포니아에서 온 청년들이었는데,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부모님 곁을 떠나고 싶어 멀리 동부까지 왔다"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이민 교회가 겪고 있던 세대 간의 거리감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목회는 늘 1세와 2세를 함께 아우르는 방향을 지향해 왔습니다. 땀과 눈물로 교회를 섬겼던 우리 1세대 부모님들에게는 척박한 이민 생활 속에서 교회가 곧 전부였습니다. 매일같이 교회로 달려와 새벽기도부터 궂은 일까지 섬기기를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성장하며 이민 생활의 위로를 얻고 직분도 받았지만, 정작 교육 시스템이 뒷받침되지 못했던 초기 이민 교회들의 자녀들은 말 그대로 방치되다시피 했습니다.

교회의 성장통도 컸습니다. 연약한 인간인지라 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구호를 내세우면서도, 의견이 다르면 교회 안에서 다투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 상처와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2세들에게 돌아갔고, 결국 다음 세대가 어른이 되었을 때 정작 교회 안에는 다음 세대가 사라진 이민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1세대들이 60대를 넘어 70대를 향해 가는 동안, 그분들의 손주들이 채워야 할 교회 학교 자리를 새롭게 유입된 30-40대 젊은 이민자들의 어린 자녀들이 대신하는 모습으로 오늘날까지 이어져 온 것입니다.

저는 그 끊어진 세대의 연결고리를 다시 잇고 싶어 지난 35년의 목회 여정 속에서 몸부림쳐 왔습니다. 이번 '백투베델' 행사는 바로 그 간절함의 열매였습니다. 지난주 500여 명의 성도가 한자리에 모였고, 그 중 30여 명의 '잃어버렸던 우리 자녀 세대'가 다시 돌아와 함께 예배드리며 한마당 잔치를 벌인 것은 실로 가슴 뭉클한 순간이었습니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어른이 된 우리 2세들이 다시 주님의 품과 교회로 돌아오는 영적 회복의 물결이 우리 베델교회를 넘어 모든 이민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기대합니다.

The 'Back to Bethel' event was a truly meaningful time for our church. Every immigrant church struggle with pain over generational disconnection yet had been left buried without daring to try anything—and our Bethel Church took the first step. As the history of Korean immigrant churches has passed half a century, second-generation members have now grown into middle age. Within the church today, two generational groups coexist: first-generation parents, whose adult children have left their parents' church, and young 30-to-40-something generations, coming to church holding the hands of their young children.

Thirty-five years ago, I began my first senior pastorate in the college town of Amherst, Massachusetts. Alongside a Korean-language worship service, which centered on graduate students, I planted an English-language worship service(Koinonia) with 20 college students, growing it into a church of over 150 people. At the time, more than half of the students were from California, and many of them half-jokingly said, "I came all the way out here to the East Coast because I wanted to get away from my parents." It was a clear reflection of the generational distance immigrant churches were experiencing. Since then, my ministry has always aimed to embrace both the first and second generations together. For our first-generation parents who served the church with sweat and tears, amid a harsh immigrant life, the church was everything. They rushed to church almost every day, willingly serving from early-morning prayer to the toughest chores. While the church grew that way—bringing comfort in immigrant life and positions of service—the children of early immigrant churches, where a proper educational system wasn't yet in place, were left practically neglected.

The church's growing pain was severe as well. Because we are weak human beings, even while raising the banner "For the glory of God," conflicts over different opinions were all too common inside the church. The wounds and fallout fell squarely on our second generation, and eventually, when the next generation became adults, the immigrant church became one where the next generation had effectively disappeared. While the first generation moved past their 60s toward their 70s, the Sunday school seats that should have been filled by their grandchildren have continued up to today being filled instead by the young children of newly arrived 30- to 40-something immigrants.

Wanting to reconnect that broken generational link, I have struggled throughout my 35-year pastoral journey. This 'Back to Bethel' event was the fruit of that earnest longing. Last week, over 500 church members gathered in one place, and seeing more than 30 of 'our lost children's generation' return to worship together and share in celebration was truly a deeply moving moment. Using this event as a catalyst, I earnestly pray and look forward to a wave of spiritual recovery—where our grown second generation returns once more to the Lord's embrace and the church—spreading beyond our Bethel Church across all immigrant churches.



너무 궁금한 주일설교시리즈
예수님 이야기
-13-

1-3부 설교노트 / 나눔교재

설교자: 김한요 목사

돌을 던질 수 있는 한 사람
(요한복음 7:53-8:11)

적용하기

1. 사람들은 왜 여인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까?(3-6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겉으로 내세운 이유와 실제목적은 어떻게 달랐습니까? 나도 옳은 일을 한다는 명분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상처 입힌 적은 없습니까?

2.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떠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의 죄에는 엄격하면서 나 자신의 죄에는 관대했던 경험을 나누어 봅시다.(7-9절)

3. 사람들은 자신의 죄가 드러나자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을 피하는 것과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어떻게 다릅니까?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과 제대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죄를 깨달았을 때 나는 어디로 향합니까?(9절)

4. 돌을 던질 자격이 있으셨던 유일한 분이 오히려 십자가에서 우리의 정죄를 담당하셨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어떻게 보여줍니까?(10-11절; 고후 5:21)

5. 예수님은 먼저 용서를 선언하시고 새로운 삶을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내려놓아야 할 정죄의 돌은 무엇입니까? 이번 한 주 동안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 돌이켜야 할 구체적인 삶의 영역은 무엇입니까? (11절)

■ **적용찬양:** 예수 피를 힘입어

예배 간증
엘리사 새벽기도회

복음이 바꾸는 삶의 기준





새벽을 깨워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듣기로 작정한 경청의 마음이 저를 엘리사 새벽기도로 이끌었습니다.

최근 직장에서 변화를 앞두고 더 나은 결정을 위해 데이터와 정보로 여러 기준을 만들며, 혹시 모를 변수를 통제하기 위해 대비책을 세워가기를 반복했던 제게 하나님은 경청이라는 마음을 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이끄셨습니다.

복음이 바꾸는 삶의 기준이라는 주제로 다루어진 본문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함에 있어 아무런 장애가 없게하려고 자신이 가진 모든 권리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런 바울의 모습 앞에서 저는 얼마나 많은 것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았습니다. 옳은 결정과 주어진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 철저히 준비해야 하고, 확실한 근거를 가져야 한다고 믿었던 것들,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향한 신뢰보다 스스로의 판단에 대한 확신이 더 크게 자리했습니다. 저는 시간도, 생각도, 판단도, 때로는 침묵할 수 있는 순간마저도 제 의지와 계획으로 채우려 했습니다. 듣기보다 설명하려 했고, 기다리기보다 준비하려 했습니다. 제가 붙잡고 있던 가장 큰 권리는 삶의 방향을 내가 결정하고, 결과까지도 책임질 수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런 제게 엘리사 새벽기도는 하나님의 음성과 계획을 듣기 위해 애쓰는 시간이었습니다. 제 생각과 필요를 꺼내기보다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오가고, 당장 해결해야 할 일들이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답을 얻어야만 평안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복음이 바꾸는 삶의 기준은 단순히 선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옳다고 믿는 것조차 하나님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계획과 그의 성실하심을 믿음으로 듣는 것이었습니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이 되기보다 먼저 듣는 사람이 되기를, 더 강한 확신을 가진 사람이 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묻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욱성 집사

성례 간증
세례자(예삶)

기다려주신 큰 은혜

저는 평생 종교 없이 살아왔습니다. 신앙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접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과거의 저는 부족함 없는 환경에서 자랐고, 제가 가진 모든 것이 오로지 제 노력으로 얻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고도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욕심을 부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인생의 쓰라린 실패를 경험했고, 일 년이 넘도록 집 밖에 나가지 못한 채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끊고 지냈습니다.

베델교회를 처음 방문한 날은 부활절이었습니다. 오랜 친구의 권유로 교회에 갔는데, 예배와 찬양, 목사님의 설교가 참 좋았습니다. 깊은 상처를 입은 제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는 듯한 위로를 느꼈습니다. 한 달 동안 예배만 드리다가 새가족 등록과 교육을 거쳐 이형석 목사님과 면담했습니다. 저는 예배는 좋지만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두렵고 자신이 없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은 따뜻한 미소로 저를 위해 기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용기를 내어 셀모임에 합류했을 때, 형제자매님들은 저를 진심으로 반겨 주셨습니다. 자기소개를 하며 떨리는 손을 다리 위에 숨기고 있었는데, 한 자매님이 다른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제 손을 살며시 잡아 주셨습니다. 그 순간 성도들의 마음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부족한 저를 하나님의 세계로 불러주신 은혜가 지금 제 삶의 원동력입니다.

저 역시 예배 때마다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입니다.

마흔이 넘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하기까지 많은 질문과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을 위해 행하신 일을 깨닫게 해 주신 분이 김현경 사모님이십니다. 사모님께 신앙의 양육을 받으며 예수님을 향한 사모님의 믿음에 깊이 감동했고, 어느 순간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욕망과 꿈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기 위해 헌신하시는 사모님의 모습에서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보았습니다. 저도 그런 아름다운 믿음을 배우고 싶습니다. 짧은 인생이지만, 이 땅에서 살아갈 남은 시간도, 하나님께 돌아간 후에도 오직 하나님을 제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박효빈



Come&See 50 특집 17
베델의 여정

믿음과 헌신의 발자취

처음 베델교회에 발을 내디뎠던 순간의 설렘과 기쁨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따뜻한 만남과 함께 드린 찬양과 예배, 그리고 믿음의 가족을 만난 것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지난 32년은 제 삶에서 참으로 감사하고 소중한 믿음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사역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별히 기억에 남는 세 가지 섬김이 있습니다.

첫째는 30년간 셀목자로 섬기며 경험한 은혜입니다. 바쁜 일상과 어린 자녀들을 돌보는 가운데서도 셀식구들과 함께 기도하고 삶을 나누며 서로의 기쁨과 어려움을 함께했습니다. 말씀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새로운 셀목자들이 세워지고 믿음의 공동체가 확장되는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둘째는 1년간 주차사역 팀장으로 섬겼던 시간입니다. 새벽부터 기도로 준비하고, 비바람이 부는 날에도 미소와 감사로 헌신했던 동역자들의 모습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맡은 일을 감당하며 한마음으로 섬겼던 시간은 제게 큰 영광이자 축복이었습니다.



셋째는 약 17년 전 새 성전 본당 건축위원 중 한 명으로 섬겼던 기간입니다. 약 2년 반 동안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힘을 모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길을 여시고 일하신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부족한 저를 귀한 사역에 사용해 주신 것만으로도 큰 감격이었으며, 함께 섬긴 장로님들과 동역자들, 믿음의 가족들에게도 평생 감사한 마음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희년을 맞아 베델교회가 앞으로도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사랑으로 하나 되고, 다음 세대에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나온 50년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앞으로의 모든 걸음도 주님의 은혜로 채워질 것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Praise God!

송석원 장로

교회학교
아기학교

믿음의 첫걸음, 하나님 안에서 자라요





아기학교를 섬긴 두 번째 해를 은혜 가운데 마치며 모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기학교는 전소연 전도사님과 여러 봉사자들(여섯 분의 선생님, 그리고 아기와 부모님의 점심을 정성껏 준비해 주시는 권사님들)이 함께 섬기고 있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라요'라는 표어를 가지고, 매 학기 12주의 프로그램을 통해 15개월부터 48개월까지의 아기와 부모님이 하나님 안에서 함께 자라나는 귀한 시간입니다. 매주 드려지는 찬양과 말씀, 놀이와 예배 속에서 어린 생명들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믿음의 첫걸음을 떼며, 부모님 역시 영적으로 함께 성장하는 복된 공동체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매주 수업이 진행되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고 신실하게 일하시는지를 깊이 깨닫습니다. 모든 봉사자들은 아기들이 영과 육이 모두 건강하게 자라길 간절히 기도하며 정성껏 수업을 준비하고 사랑으로 아기와 부모님의 점심을 섬깁니다. 특히 아직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 어린 아기들이 밥 먹는 시간에 고사리손을 모으고 '날마다 우리에게' 감사기도 찬양을 신이 나서 함께 부르는 모습을 볼 때 정말 큰 감동이 밀려옵니다. 그 순수한 입술의 고백을 통해 각 가정이 말씀 위에 굳건한 하나님의 가정으로 세워져 가는 모습을 경험하며 진심으로 감사드리게 됩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아기학교가 복음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기학교에 등록하신 부모님 중 절반이 베델교회의 교인이 아니거나 아직 신앙이 없으신 분들인데, 매주 이어지는 따뜻한 환대와 각 가정을 위한 중보기도, 그리고 선생님들의 헌신적인 섬김 속에서 처음 교회 문턱을 넘은 부모님들의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한 은혜의 통로가 됨에 깊이 감사합니다.

이처럼 아기학교 수업을 통해 아이와 부모님, 그리고 섬기는 우리 모두의 삶 속에 'The Kingdom of God'이 세워져 가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생생하게 경험합니다. 세대와 세대를 믿음으로 잇는 이 귀한 사역을 통해 앞으로도 더 많은 가정이 주님을 만나고, 아기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깊이 뿌리내리길 간절히 소망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현승원 집사

목회자 인사
한어중고등부(CIM)

프리실라 레페브리에이 전도사



샬롬, 안녕하세요! 베델교회 CIM 한어 중 · 고등부를 섬기게 된 프리실라 전도사입니다. 저희 가족은 프랑스계 미국인 남편과 아들 하나, 딸 하나로 이루어진 네 식구입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 속에서 만나 가정을 이룬 남편과 저는 어느덧 결혼 28년 차가 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두 문화가 만난 저희 가정에는 한국과 미국의 문화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습니다. 남편과 두 자녀 모두 한국 문화와 음식을 무척 좋아하며, 특히 남편은 갈비찜과 겉절이를 좋아합니다. 남편에게는 '스파이(Spy)'라는 재미있는 별명도 있습니다. 한국말을 못하면서도 신기할 만큼 잘 알아듣기 때문입니다. 오랜 세월 한국인 아내와 함께 살면서 자연스럽게 터득한 특별한 능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 가정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 웃음과 기쁨도 있었지만, 수많은 인내의 순간과 믿음이 필요했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 가정을 붙드시고, 어려움을 이겨 낼 힘과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오늘까지 저희 가정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의 여정 가운데 베델교회로 부르심을 받아 새로운 믿음의 가족을 만나게 된 것은 저희 가정에 더해 주신 또 하나의 귀한 선물입니다. 특별히 인생의 중요한 성장기를 보내고 있는 청소년들을 섬기게 되어 감사하면서도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무엇보다 사랑과 헌신으로 청소년들을 돌보시는 CIM 선생님들과 함께하게 되어 참으로 든든하고 감사합니다. 귀한 동역자들과 함께 우리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고,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섬기겠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을 맞아 지나온 모든 날에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무엇보다 저희 가정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기쁨과 어려움의 시간을 함께해 온 사랑하는 가족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새로운 믿음의 가족으로 저희를 맞아 주신 베델교회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하며 믿음의 여정을 이어 갈 날들이 참으로 기대됩니다.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프리실라 레페브리에이 전도사

교회학교
AWANA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어와나



처음 어와나 교사로 섬기게 된 것은 저의 자발적인 결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주보에서 어와나 교사가 부족하다는 광고를 보고 섬기기로 결심했고, 교사 신청을 하면서 제 이름까지 함께 신청해 버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마음의 준비도 없이, 말 그대로 아내에게 떠밀려 어와나 교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과정 또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영어가 서툰 저에게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은 큰 부담이었습니다. 한국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아이들이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아이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을까? 이러한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한국어로 전하는 말씀에도 귀를 기울여 주었고, 궁금한 점을 질문하며 자신의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저이지만, 그 말씀을 아이들의 마음에 심으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매주 아이들이 요절을 암송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제가 더 큰 은혜와 도전을 받습니다.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일상에서 그 말씀을 기억하며 적용하려는 모습을 보면서 제 신앙을 돌아보게 됩니다. 저는 과연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됩니다.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 시작한 사역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아이들을 통해 저를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혹시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섬김의 자리를 망설이시는 분이 계신다면,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준비되지 않은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저를 변화시키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감당할 힘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그 섬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아이들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믿음 안에서 자라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야말로 제가 이 섬김을 통해 누리는 가장 큰 기쁨이자 감사입니다. 앞으로도 저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아이들과 함께 말씀 안에서 성장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장현복 집사



담임목사: **김한요 목사**
동사목사: **황모세 목사**

⊙목회자⊙
기획/행정/QTin: **조동현 목사**
소망/선교: **이충경 목사**
기쁨/찬양/전도: **박경철 목사**
화평/온유/섬김: **박성권 목사**
사랑/셀/울림: **조태헌 목사**
충성/Joy/훈련: **서동민 목사**
은혜/새가족/BCA: **배홍수 목사**
믿음/예배: **이형석 목사**
BGC 담임: **Dan Nam 목사**
BGC(College/Worship): **Peter Lee 목사**
BGC(Young Adult): **Daniel Yoon 전도사**
일본어/수요예배/기도: **손용주 목사**
예삶채플(총괄): **강솔로몬 목사**
예삶채플: **최요셉 전도사**
영어고등부: **김한나(Hanna) 전도사**
교회학교(총괄)/영어중등부: **현호승(Daniel) 목사**
영어중등부: **신재민 인턴 전도사**
한어중고등부: **프리실라 레페브리에이 전도사**
초등부: **이지원(Cindy) 전도사**
유년부: **이승진(Sharon) 전도사**
K-1: **정가영(April) 전도사**
유치부/아기학교: **전소연 전도사**
유아부: **이경은 전도사**
영아부: **최미정 전도사**
소망부: **김재은 전도사**
환우: **정티나 목사**
Beyond the Blue: **오경희 전도사**
병원심방: **김현일 협동목사**
상담: **황성철 협동목사**
의료상담: **이강민 전도사**

⊙베델 콰이어 및 찬양팀⊙
지휘자: **김형직 목사**
솔리스트: **최정원**
뮤직디렉터: **정봉화**
반주자: **한현미, 박정연**
예삶 워십: **조요셉**

⊙교회 직원 및 간사⊙
사무장: **조주은**
건물/차량관리: **김유호**
사무실: **인현미, 이미옥**
재정실: **이수민**
방송실장: **박주남 전도사**
방송실: **민윤기, 김앤드류(인턴)**
목회지원/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음향: **최철기**
컨텐츠 디렉터: **최종형**
음향: **강창위, 한 진**
디자인: **박선경**
웹/IT: **김정아**
수양관: **오춘란**

사역광고

교사 감사 만찬

한 해를 마무리하며,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의 무릎을 꿇고, 귀한 시간과 사랑을 아낌없이 내어 주시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과 헌신으로 섬겨 주신 교사, TA, 팀장, 목회자께 감사와 격려를 전하는 교사 만찬(Teachers' Appreciation Dinner)을 갖습니다.

매주 주일, 때로는 지치고 힘든 순간에도 한 영혼을 향한 사랑으로 아이들을 품어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믿음의 씨앗을 심어 주신 그 귀한 수고를 기억합니다. 누군가는 알아주지 못했을 작은 섬김과 희생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며, 그 사랑을 통해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자라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특별히 베델교회 창립 50주년인 올해, 지난 50년간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워 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오늘도 묵묵히 이어 가는 모든 교육부 섬김이들께 깊은 감사를 전하고자 합니다.



늘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을 나누며 섬기는 자리에 계셨던 교사들이 이 날만큼은 마음껏 사랑받고, 위로받고, 축복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해 동안 흘리신 땀과 눈물이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되기를 바라며, 이번 교사 만찬이 교사 한 분 한 분께 진심 어린 감사와 따뜻한 위로를 전하는 특별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헌신이 우리 다음 세대의 오늘을 세우고, 내일의 믿음을 꽃피우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감사와 사랑을 전하는 이 귀한 자리를 위해 사전 준비부터 행사 당일까지 많은 섬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물심양면으로 함께해 주실 성도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일시: 12월 6일(주일) 오후 4시, 부서별 사진 촬영으로 시작**
▶ **봉사 신청 및 문의: 천승현 집사 (512)947-7291**

예배 봉사자

주일예배 대표기도(12월) |
12/6: ①부-최재윤 ②부-이창열 ③부-황인수 ④부-정용익
12/13: ①부-탁정호 ②부-최두현 ③부-최재호 ④부-채지우
12/20: ①부-최동주 ②부-허용진 ③부-최주상 ④부-하시영

헵시바 토요새벽 대표기도(12월) | 12/5: 김종곤 12/12: 정승우 12/19: 진정훈 12/26: 정저스틴

강단꽃(11,12월) | 11/29: 이미옥, 이종선 12/6: 엄금연, 이지민 12/13: 왕예진 12/20: 윤주원

[의무실(오전 8:30-오후 1:00)]
이번주 | 의사-이강민(임상병리), 간호사-황미례 다음주 | 의사-최지수(치과), 간호사-홍정이

선교후원

[파송선교사] 창의적접근지역 | 손승옥, 김진영, 서반석(이루다), 오감사(오사랑), 장주원(장한나), 이희숙, 장과장(주열매), 호세아(그사랑), Nader(Dina), Yeshua, Reza
캄보디아 | 황순현(황현주), 이석배
[협력선교사] 기니비사우 | 유요한(유글로리아) **니카라과 |** 박우석(이현숙) **이스라엘 |** 장이삭(정인나)
멕시코 과달라하라 | 허익현(김영중) **몽골 |** 을지바트(민애령), Kathy Ribbs **베트남 |** 성결(양선) **브라질 |** 브레노(에스더)
온두라스 | 이동철(이순미) **우간다 |** 박민수(이순영) **일본 |** 강민숙(변선영) **캄보디아 |** 김인성
코스타리카 | 금상호(김미경) **탄자니아 |** 황광인(황영숙) **태국 |** 박상선(신영선)
창의적접근지역 | 길예평(길진명), 이상훈 **문화선교 |** 공 민(The Bridge), 김도현(나비공장)
***선교기관 |** 나눔선교회, 밀알선교회, 바실레이아 신학교, 소망 소사이어티, 푸른초장의 집, 한미가정상담소, 헤브론병원, Gift of Vision, GMMA, GP미주본부, New Hope 선교 유치원, QTm America, Silk Wave Mission, The Center for BAM(CBAM)
***특별선교 |** 복음방송(GBC), CTS, CGN TV
***문서선교 |** 기독일보, 미주 크리스천 신문, 크리스천 위클리

베델 알림판 Bethel Announcements

◆ **포도헌금** 다음주 주일(6일)은 포도헌금을 드리는 날입니다. 포도헌금은 베델의 다음세대를 위해 헌신하시는 교회학교 교사들을 격려하기 위한 헌금으로서 전 교인이 각 10불씩 헌금하시면 됩니다.

◆ **성찬식** 오늘 각 예배 시간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세례를 받거나 입교한 교인이 참여하실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고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전 로비에서 성찬 키트를 수령해 주시고, 사용하신 키트는 예배당 밖 휴지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말 특별저녁 부흥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어받은 믿음과 결코 헛되지 않을 사명의 자리로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2027 임직자 선출을 앞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자리에 모두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같은 시간에 교회학교 집회도 있습니다.
일시/장소: 11월 30일(월)–12월 2일(수) 저녁 7시, 본당
강사: 이혜진 목사(아틀란타 벧엘교회 담임)

◆ **OICOS 예배 및 엘리사 새벽기도회** 모든 성도와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예배합니다. 주중에는 온 교회 중직자 중심으로 임직을 위한 엘리사 새벽기도회가 있습니다.
OICOS 예배 일시/장소: 12월 5일(토) 오전 6시, 본당
OICOS 예배 특송: 올해 2026년 임직자들(사역장로, 안수집사, 사역권사)

◆ **정기 제직회 및 임직선거** 12월 5일(토) OICOS 예배 후 오전 7시 30분 본당에서 정기 제직회(2027 예산안, 임직자 투표)로 모입니다. 서리집사 이상의 제직들은 필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12일(토) 헵시바 기도회 후에는 교인 총회로 모입니다.

◆ **베델콰이어 및 성금요일 프로젝트 콰이어 대원 모집**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섬기실 성가대원을 모집합니다. 또한 2027년 성금요일 예배에서 함께 찬양하실 프로젝트 콰이어 대원을 모집합니다. 성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신청 방법/문의: 코트야드 부스 또는 QR코드, 오은옥 권사 (714)615–7096

◆ **K-12 크리스마스 합창단** 성탄절에 함께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교회학교 크리스마스 합창단에 참여할 학생들을 모집합니다. 함께 찬양할 모든 학생을 환영합니다.
대상: K–1,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BYM, CIM)
연습 날짜: 11월 29일, 12월 6일, 12월 13일, 12월 20일
시간/장소/참가 방법: 매주 주일 오후 12시 45분–3시(점심 제공), 비전채플, QR 코드

◆ **Operation Christmas Child Shoebox** Samaritan's Purse에서 진행하는 이 사역은 전 세계 어려운 환경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사랑과 복음의 메시지를 담은 선물상자를 전달합니다.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참여하여 나눔의 기쁨을 경험하고, 작은 선물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뜻깊은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물상자에 넣을 물품〉 〈Build a Shoebox Online〉
참여 방법: 12월 6일(주일)까지 본당 앞 부스에서 Shoebox를 픽업하신 후, 선물과 물품을 상자에 담아 다시 부스로 가져다주시면 됩니다.
문의: 정인주 집사 (949) 418–2456

◆ **베델한국학교 봄학기 등록** 자녀의 뿌리와 미래를 함께 키우는 곳, 베델한국학교가 봄학기 등록을 시작합니다. 등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QR코드로 확인해주시기 바라며, 문의 사항은 교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재학생 조기등록 할인: 11월 14일(토) 오전 8시–11월 29일(주일) 오후 8시
신입생 및 일반 등록: 11월 30일(월) 오전 9시–12월 13일(주일) 오후 9시
문의: 윤주원 장로 (949)892–9512, 황수정 집사 (949)562–5262

◆ **헌금 명세서** 2026년도 헌금내역이 교적에 기재된 집 주소로 발송됩니다. 주소 변경이 필요하신 분은 헌금 봉투 아래 주소 변경란에 기재해 주시거나 교회 사무실로 변경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교회 사무실 (949)854–4010, bethel@bkc.org

◆ **UCI 'Sounds of the Season' Choral 콘서트** 올해로 네번째를 맞이하는 UCI 합창단의 특별 콘서트가 우리 교회 본당에서 열립니다. Irene Messoloras 교수의 지휘 아래 UCI Chamber Singers와 Concert Choir 등 200여 명의 단원이 아름다운 하모니를 선사할 예정이오니, 음악을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일시/장소/주최: 12월 3일(목) 오후 7시 30분, 본당, UCI Claire Trevor School of the Arts

◆ **큐티인 12월호 판매** QTin 12월호가 나왔습니다. 카페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따듯한 12월 되시기 바랍니다.
문의: 김광영 장로 (949)233–0677

◆ **축하해 주세요**
– 이교혁/박혜미 집사의 가정에 아들 하민(Kade)이가 11월 16일(월)에,
– 이준희/원지영 성도의 가정에 아들 태우(Theo)가 11월 23일(월)에 태어났습니다.

교회학교 주중 모임 안내

- **AWANA(어와나):**
  – Sparks / 금요일 오후 7시, 각 클래스(K–2학년)
  – Truth&Training / 금요일 오후 7시, 각 클래스(3–5학년)
- **중.고등부:**
  – BYM(영어중고등부) / 금요집회 오후 7시 30분, 비전채플
  – CIM(한어중고등부) / 금요집회 오후 7시 30분, 샬롬채플
- **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9시 30분, 한국학교 각 교실
- **아기학교:** 수요반(15–48개월) 오전 9시 45분, 할렐루야채플

주중 예배 및 기도모임 안내

- **주중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시 30분, 본당
- **헵시바 새벽기도회(토):** 오전 6시, 본당/온라인
- **베델 수요저녁예배:** 오후 7시, 본당
- **예삶금요예배(청년):** 오후 7시 30분, 임마누엘채플
- **주일 레위기도 모임:** 1–3부 예배시간 중, 컨퍼런스룸

베델뉴스 편집위원

- **발행인:** 김한요 담임목사
- **편집장:** 김경자 권사
- **기 자:** 강정훈 집사, 강은혜 집사, 권두경 집사, 김규현 집사, 김유미 권사, 배민정 집사, 박혜성 권사, 안정선 권사, 이혜림 집사, 이소영 권사, 황수정 집사
- **사진 기자:** 박상곤 장로, 최호경 집사 차규양 장로
- **번 역:** Grace Yi 전도사

비전 주차장 3377 Michelson Drive, Irvine, CA 92612 *주차 시 〈Employee Reserved Parking〉은 피해서 주차하시길 부탁드립니다. ◈ **베델뉴스 원고파일은 bethelnews@bkc.org로 보내주세요.**

베델/갈릴리수양관 31600 El Cariso Trail, Lake Elsinore, CA 92530 ◆ **수양관전화번호(예약문의)** (949) 943-9697 ◆ **E–MAIL** bgrcenter@hotmail.com



Very Curious SERMON SERIES

JESUS STORY -13-

Sunday Worship Sermon Note

Speaker: Rev. Bryan Kim

The Only One Who Could Cast the Stone

(John 7:53–8:11)

Apply to Life

1. Why did the people bring the woman to Jesus? (vv. 3–6) How were the actual motives of the scribes and Pharisees different from the reasons they gave publicly? Have you ever condemned or hurt someone because you thought you were right?

2. Why do you think the people walked away after hearing Jesus say, "Let him who is without sin among you be the first to throw a stone at her"? (vv. 7–9) Share an experience in which you were quick to judge someone else's sin but lenient toward your own.

3. When their own sin was exposed, the people walked away from Jesus.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avoiding God out of guilt and coming to Him in repentance? Is my conscience properly guided by God's Word? When I become aware of my sin, where do I turn? (v. 9)

4. The only One who had the right to cast the stone instead bore our condemnation on the cross. How does this reveal both the justice and love of God? (John 8:10–11; 2 Corinthians 5:21)

5. Jesus first declared forgiveness and then called the woman to live a new life. What stones of condemnation do I need to lay down? Through the grace of the Lord, what specific areas of my life do I need to turn away from sin and change this coming week? (v. 11)

English translations for worship services via Discord

■ **Song in Response:** Only By Your Blood